

공동체 소식

■ 사순시기 안내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은 고행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맞이 위해 집 안팎을 깨끗이 정리하듯 죽음과 부활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성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에서 전례 중 기쁨을 상징하는 요소인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바치지 않습니다. 사제의 제의도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자색)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사순 제4주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맞본다는 의미에서 장미색 제의를 입기도 합니다.

주일미사 35분전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사순기간 개별적으로 매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권장합니다. 아직까지 고해성사를 보지 못한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사순시기에 고해성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합동판공성사는 3월 31일(일) 미사 전 10시30분~10시 55분까지 있습니다.**(김상현 사도요한 신부님) 금육과 단식 규정은 성당 입구 게시판 참조 바랍니다. Rice bowl(하루\$1씩 40일) 가져가서서 부활전 내주시기 바랍니다.

■ One Faith One Family One Future In CHRIST

캠페인 기도문을 미사 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설명은 지난 주보와 함께 배포된 교구장 주교님 편지를 참조해 주십시오.(영문/한글번역본)

■ 구역장 안내

1구역장 김명희 리드비나 **2구역장** 김시연 엘리사벳
3구역장 최선윤 마리아 **4구역장** 차상욱 펠릭스

■ 주일학교 교리 안내

주일 오전 10시-10시 30분 나자렛관에서 교리 교육있습니다. 10시 30분 이후 성당으로 이동하여 매일미사에 나오는 주일 영어독서와 영어복음을 함께 읽습니다. 매일미사책 준비 바랍니다.

Camp Tekakwitha 주일학교 여름캠프 신청바랍니다(캔사스 대교구 주관)

■ 중남부 남성 제16차 꾸르실료 신청 안내

일시 : 5월 30일(목) 오후 5시~6월 2일(일) 오후5시
장소 : Formation Center 901 S. Madison Ave. Dallas, TX, 75208
대표지도사제 : 고훈호 베드로 신부님
회비 : \$350
본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중에 꾸르실료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례부에 참가 신청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 평신도협의회 : 24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환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아,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24가정)

■ 구역모임 안내:

2구역: 23일(토) 저녁 7시 문석찬 요셉 가정
4구역: 23일(토) 저녁 7시 이우영 가브리엘 가정
구역내 모든 가정을 한차례씩 돌며 구역모임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구역 모임 시간 확인해 주십시오.

■ 맨하탄 공동체 미사: 23일(토) 오전 11시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금 주	117	511	166	122
차 주	118	217	174	119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로마노)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차 주	최은미(아네스)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차민서(임마누엘)	김정원(안젤라) 김정훈(로베르도)
차 주	정예찬(미카엘)	정예진(한나) 김정빈(바오로)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예레미아), 강승호(아오스딩)
차 주	김영진(라파엘), 조진환(베드로)

■ 애찬 봉사자

금 주	6조: 문문주, 장유정, 김희진
차 주	7조: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위대하시고 진실하신 하느님께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굳게 믿고 성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그림 묵상

예수의 영광스런 모습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마태 17,2-3)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5,5-12,17-18
<하느님께서서는 충성스러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다>



-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
-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17—4,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8ㄴ-36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생명의 말씀

하늘과 땅 사이에



거룩한 변모.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른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합니다. 루카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었다.” 루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이전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변모에 함께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성경에서 전하는 하느님의 구원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힙니다. 모세는 탈출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체험을 이끈 예언자이며 유일하게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던 인물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미래에 하느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보낼 예언자로 소개됩니다. 엘리야는 우상이었던 바알의 사제들에 맞서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낸 예언자이면서 바람에 실려 하늘로 들어 올려진 인물입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에 전해지는 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와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의 세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복음서 안에서 중요한 축(軸)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신성(神性)을 표현하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복음서의 시작과 중간에서 예수님의 신원을 드러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변모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영광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모든 이들이 알게 될 그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해 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세례와 영광스러운 변모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서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사건이면서 복음서 안에서 명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표현합니다. 변모 사건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나 거룩함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묘사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변모가 얼마나 황홀하고 찬란한 것이었는지 엿보게 됩니다. 그저 그렇게 머물고 싶고 다른 모든 것들을 잊게 만듭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원하는 사회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나 영광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시편 34,9)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머물러 있기를, 머리보다 먼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맛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하느님!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건 어떤 건가요?
아기천사가 물었습니다.

응. 아가~ 난 가로등이 맘에 들더구나.
어두운 밤, 길을 잃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별과 똑 닮았단다.
희망이 되어주는 작은 불빛. 그걸 닮았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었다.
(루카 9,29)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항상 감사하라

일선 부대의 성당에는 성가대가 거의 없고 반주자도 없는 처지라 그저 큰 목소리로 성가를 부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제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성가를 같이 연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생도 시절부터 작은 성가대를 지휘했지만, 그 당시는 그저 같이 모여 연습하고 성가를 부르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모습을 갖춘 성가대의 지휘를 맡게 된 것은 2002년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갑자기 성가대 지휘자의 인사이동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아무런 준비 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첫 지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중성당 중에서 제일 큰 성당이고 제대의 오른쪽에 모든 신자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성가대 자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시종일관 땀이 비 오듯 했습니다. 미사 중반쯤 되었을 때 무엇인가 들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례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땀이 멈추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며 저도 모르는 사이 전례의 한 부분으로 성가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성가 지휘와 성음악에 관한 공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가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그

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주님께 찬미를 드리는 성가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성가를 부를 몇 명의 신자들만 있어도 성가대를 만들고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성가대의 화음과 찬양을 듣고 성가대 활동에 참석하는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성당에서는 전체 신자의 3분의 1이 넘는 신자가 성가대에 들어와 오래된 어린이집을 수리해 미사를 봉헌하던 성당 뒤쪽이 성가대로 가득 찼던 기억도 납니다.

주님께서 제게 과분할 정도로 주신 은총과 능력을 남들 과도 나누라는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신 것처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가르치려는 지휘자가 아닌 성가대원과 같이하는 단원의 한 명이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지휘자도 봉사자이며 성가대원도 봉사자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더욱 큰 은혜와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달란트를 주신 하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영원한 주님의 종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백윤형 알베르토
한국항공소년단 사무총장

복음묵상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루카 9,35)

캘리그래피
서영숙 마르티나